

투데이 칼럼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촉구하며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안전부가 1999년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꾸면서 만들



정상섭 정읍시 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행안부는 이 기관의 운영을 위한 현실여건과 민의 자치역량 수준에 따라 관 주도단계, 민관협동운영단계, 민주도단계로 발전 목표를 세웠다.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례 제17조(구성 등)는 주민자치위원을 무슨무슨 단계로부터 추천 또는 선정된 자, 공개모집방법으로 선정된 자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과반수 미만 위원 위촉 선정 시 심의회 구성을 '구성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이 아닌 '구성해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하여 예외 없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하거나, '구성하지 않는다'로 하여 전적으로 동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다. 심의회에서 가능한 객관적 기준으로 위원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 기준과 기한을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에 성문화해야 한다.

독자제언

'가정폭력' 가정만의 문제일까

가정폭력의 과거 인식은 개인의 가정사이고 사회에서 간섭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 되어왔다.

성장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폭력과 정에 대한 잠재적, 반복적 관찰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후 파열적인 상황에서 곧바로 공격하려는 욕구가 생겨 결국 폭력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한다.

독자제언

우리 아이를 위한 카시트, 선택 아닌 필수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를 보였다. 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에 따르면 승용차가 5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충돌했을 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와 가슴 등을 부딪치기 때문에 머리 중심 가능성이 2배(사망가능성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국가예산 지역 차별 반드시 개선해야

전북도는 정부의 국가예산 차별에 이의를 제기해야겠다. 국토의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 전북은 지난 수십 년동안 그제 아니다.

했던 SOC사업만 해도 그렇다. 해마다 예산이 증액됐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전북 의료 관광 현주소는 어디인가

전북 의료 관광의 현주소를 돌아보아야겠다. 오래도록 매우 어둡다는 지적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분야가 많이 아니다. 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의료관광의 전국 대비 점유율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ves and a sun/moon.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nd '전주매일' logo.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